

# 한국디자인의 정치적 성향 - 독재정권기의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Korean Design - focused on public desig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김종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im, Jong-Kyun

faculty of Design, SNU

• Key words: Political, authoritarian, public design

## 1. 서론

디자인은 사회의 표현이다. 사회가 제국주의, 냉전체제, 독재사회 등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디자인도 이러한 성향을 띄게 된다. 멀리 니콜레옹 시대에는 앙피르(帝國)양식을 통하여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기를 기원했고, 독일 나치(Nazis) 제국시대에는 히틀러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바우하우스의 조형 가치를 활용하여 아리안(Aryan)이라는 민족적 조형으로 선전하였다. 지난 반세기, 한국사회는 개발독재 사회형태속에서 산업화, 근대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산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디자인은 일반적인 문화발전양상과는 달리 그 의도와 함의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조작되며, 드러나지 않는 억압, 통제장치, 국가 선전물로서, 정치적 성향을 띄며 발전하여왔다.

## 2. 모더니즘(modernism) 디자인의 정치적 성향

지난 세기, 디자인 담론의 대부분은 제국주의와 냉전체제라는 이념적 성격이 짙었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부과되었던 시대적 소명은 '근대화를 통한 문명의 진보'였고, 일견 이러한 노력들은 표면적으로는 성공리에 수행되어 온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정치적, 권위적,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띤, 서유럽·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시각(계몽주의)이 도사리고 있음은 곧잘 간과되곤 한다. 근대와 전근대, 동과 서, 글로벌과 로컬, 남과 여, 이성과 감정, 산업과 문화, 이념과 일상, 기계와 인간, 권위와 탈권위, 이분법 전일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문화 산물들이 이념적 잣대에 의해 구분되고, 찢개져 나뉘어 왔으며, 이러한 성향은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 디자인(예술을 포함해서)의 주된 테마인 모더니즘의 역사는 제국주의의 역사이며, 탈모던 논의는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호학,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반동적 문화이론이 등장하였지만 비주류에 머물렀고, 철저하게 디자인의 역사는 제국주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해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이어지는 모던 디자인 발전사는 산업 발전사와 일치하며, 이는 곧 제국주의 발전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디자인이 많은 부분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냉전 기간동안 미국은 철저히 모던디자인을 정치선전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트루먼 독트린<sup>1)</sup>의 연장선상에서 유럽과 제3국가에 물자만 원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식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이 적극 활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H.S.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하였다. 미국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으로,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당시 공산세력으로 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원조가 제공되었다. 이 원칙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부흥계획과 북대서양조약으로써 구체화되어 갔다.

디자인의 정치적 속성상 모던디자인 발전과정(역사)속에서는 제3세계의 예술이나 디자인은 항상 소외된다.(비서구 문화권중 유일하게 일본만 포함되나, 일본 역시 제국주의 국가체제를 표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엘리트 계급 추상미술과 예술가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도 없다고 흔히 인식하고 있지만, 엄연히 그들 국가도 디자인사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지구상의 대부분 문화권(아시아,아프리카,남미)또한 디자인사 서술범위에서 제외된다.

한국사회의 5000년 문화성과물이 디자인사에서는 변방에조차 끼지 못하는 것은 디자인의 주된 담론을, 의제를, 관점을 그들 제국국가들이 모두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중심으로 발전했던 기하학적 형태의 모던디자인, 혹은 스타일링 디자인만을 디자인이라고 규정짓는 태도는 제국주의나 냉전체제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또 미국의 지속적인 문화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 3. 한국의 Good design과 Propaganda design

한국의 디자인은 해방이후 미국으로부터 전파되었고, 이후 발전양상은 전적으로 미국의 디자인관(觀)을 따르고 있다.<sup>2)</sup> 미군정을 통하여 소개된 미국식 모던디자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도사로서, 문화제국주의 논리로 한국사회에 전파되었다. 또 60년대 '조국근대화' 라는 시대사적 과제는 '서구식 산업화'와 연결되어, 자발적인 식민지화, 제국주의식 문화계몽을 불러왔다. 척결되어야 할 양시에레짐은 일본의 잔재였음에도, 한국의 전통문화, 생활 방식등이 전근대로 분류되어, 새마을운동, 가정의례준칙 등과 같은 근대화 운동을 통하여 제거되어 나갔다. 모더니즘은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경제개발의 바로미터였으며, 공산주의와의 대치상황에서 두드러진 민주주의의 이념적 표식이었다.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것이며, 산업화의 상징이자, 세계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1인독재의 통제 사회하에서 쉽게 수용되고 전파될수 있었다.

미국사회내, '굿디자인'이란 모던디자인을 일반대중에게 인식,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소비'가 미덕으로 인식되던 시기, 디자인의 평가기준은 생산자에서 수용자,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상업적 디자인의 등장을 알렸고, 1950-55년, 뉴욕 MOMA(Museum of Modern Art)를 통해 행해진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인 굿디자인 전시회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굿디자인이 정립된 것이다.

한국사회내부의 굿디자인 기준은 미국의 굿디자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80년대 중반, 한국디자인 포럼센터에서 시행한 '굿디자인 마크 제도' 및 금성사, 삼성사에서 시행한 '굿디자인 전'은 당시의 굿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국

2) '한국현대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디자인학연구58호 참조

디자인포장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굿디자인전의 개요를 보면, 그 주된 목적이 '계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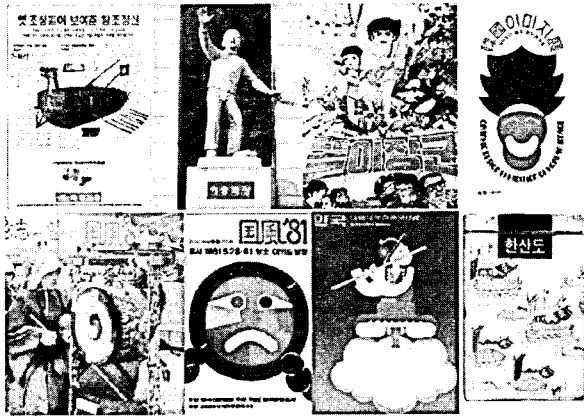


1985

GOOD DESIGN

서구(미국)가 제시하는 굿디자인의 개념은 독재정권의 조국근대화정책과 맞물려 비판없이 수용되었고, 당시 가전3사가 제작하는 제품은 특성없이 똑같은 모던스타일의 디자인이었다. 또한 서구식 식생활의 보급과 서구식 의복체계, 주거환경의 개선 등 대부분의 생활문화 변화는 개발독재기 동안 진행되었고, 서구화 되는 것이 근대화되는 것이라는 서구사대적, 옥시덴탈리즘적 성향으로 일제36년간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문화변화가 일어난다.

한편,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이 되풀이 되면서 부족한 정통성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민족문화 강조가 이어졌고, 전통문화가 발굴되었고, 왜곡·각색되어 정권의 홍보수단, 전시성과물로 변질되었다. 7-80년대는 유난히 '한국적 디자인'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대부분 미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나타냈는데, 오방색, 태극, 풍수 등의 아 이템이 주로 디자인에 채택되고, 공공건축물은 기왓장이 울러지 거나, 사찰의 기둥양식을 흉내내었고, 공공디자인은 주로 아리랑, 화랑, 충무공 등 역사적 소재의 리바이벌이었다. 또 반공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공공디자인이 다수 등장하였고, 정권 선전용 거대 축조물이 다수 지어졌다.



#### 4. 디자인계, 독재정권의 영향

한국사회내에서의 디자인 발전사는 철저하게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하였고, 또 '산업'의 일환으로만 간주되어, 근대화 초기 서구 디자인계에서 보여지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성향의 사회개혁 움직임이나 민주화운동의 일환, 혹은 아방가르드 운동 등과 같은 일련의 좌파적 문화운동(미술공예운동, 비우하우스, 러시아 구성주의, 데스틸, 다다, 초기 포디즘 등)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회·문화적 운동으로서의 디자인 접근이 차단되었다. 단적인 예로, 80년대 민주화항쟁을 거치며 모든 문화예술분야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할 때, 디자인계는 이러한 현실과는 무관한 계몽시대의 디자인, 상업적 디자인만을 추구하고

3) 월간디자인 85년.

있었다. 민중문학, 민중예술, 민중가요, 노동운동 등 사회문화계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던 시기였지만, 유독 디자인계는 선진국 신드롬을 추종하며 사회현실을 외면하였고, 정부정책과 그 움직임을 같이 하며, 미국식 모던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그 조국 근대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고, 한국사회에서는 이슈화되지도 않은 "실버, 그린, 유니버설, 전통문화" 등과 같은 키워드 들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었고<sup>4)</sup>, 80년대 말에는 진흥원 주도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스타일 등을 흉내내는 경향도 나타났다.



좌: 홍성담 '대동세상' 광주의 진실과 새 세상의 전망을 형상화  
우: 신경림의 '목계장터'

개발독재기의 '선진국' 따라잡기 정책은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범람을 불러왔고, 한국의 토속문화를 해체시켰다. 60년 남짓 시간동안에 자생적인 토착문화가 모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사라진 전무후무한 국가가 되었으며, 해방이후 줄곧 국시였던 반공이데올로기는 제국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범람을 가져왔다. '수출품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디자인은 그 시작점부터가 개발독재의 산물이었다고, 문화로서 가져야 될 대중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디자이너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사명,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망각되었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technocrat)화 되었다.

#### 5. 결론

독재정권기, 디자인이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전통문화를 고정관념화 했다는 것과 대중의 입장에서 잘못 디자인된 것을 반복 재생산하게끔 '계몽' 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것이 공공디자인이나 선전적 의미를 가지는 활동에 있어서 디자인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하거나, 미화함으로써 국민정서와의 괴리감을 심화시키고 대중들을 낙담,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디자인을 수출증대라는 목적으로 출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쉬운 산업의 범주에 한정시킴으로서, 현실사회의 문제에 냉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의 문화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소속집단으로서의 역할·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디자인을 기술영역화, 관료화 시켰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서구식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대주의적 성향이다. 영미권중심의 서구식 모더니즘을 도입하는 것으로, '근대화',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전통 조형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놓쳐버린 점과, 이후 지속적인 영·미 추종적인 디자인경향, 관성을 남겼다는 점도 오늘날 한국디자인의 과제로 남았다.

(참고문헌 생략)

4) 당시 서구사회 담론의 주된 주제가 환경문제와 고령화사회였다. 또 독재정권의 주된 문화정책은 언제나 '민족문화 창달'이었다.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수상작품들이 대부분 서구선진국 공모전을 흉내내거나 정치적 성향의 전통문화를 내세우는 풍조였다.